"주암호 수돗물 안먹겠다"

벌교지역 주민, t당 원수대금 394원 추동상수원보다 6배나 비싸

주암호 상수원을 수돗물로 공급받게 될 보성군 벌교읍 일부 주민들이 수돗물값이 비싸다며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벌교지역 일부 주민들은 최근 '벌교 주암호 급수 반대 추진위원회'(이하 급수 반대위)를 구성하고 수돗물값 상승과 공급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급수반대위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하루 평균 1만t씩 공급받는 주암호 상수원의 원수대금이 1t당 394원으로, 기존 추동 상수원(65원)에 비해 너무 비싸 주민 추가 부담금이 연간 1억9천만원에 달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급수반대위 주민들은 또 "상수원을 바꿀 경우 군정 세수입도 감소해 추동 상수원에서는 1t당 465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주암호 상수원의 경우 135원에 불과해 연간 2억2천만원 사용료 수입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성군이 누수율을 줄이는 등 기존 정수장과 수도관 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신 값도 비싸고 수질도 나쁜 주암호 상수원을 강제로 먹으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금껏 벌교지역은 3천여 상수도 수용가 중 2천200가구가 지난 1980년에 설치된 추동 상수원을 공급받고 나머지는 주암호 물을 사용하는 등 급수체계가 2원화 돼 있었다. 이 때문에 보성군은 26년 된 낡은 추동 상수원 대신 급수체계를 광역상수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3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3년부터 일부 지역에 주암호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달 말 전체 수용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보성군 관계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수질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경제성과 주민 보건 위생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주암호 상수원 공급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지리산·월출산 일부 등산로 폐쇄

산불방지 내달 15일까지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오는 12월15일까지 지리산과 월출산, 덕유산 일부 등산로를 통제한다.

지리산 통제구간은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해 ▲치밭목~천왕봉 ▲선녀탕~천왕봉 ▲뱀사골대피소~삼도봉~반야봉 등 19개 구간이다. 그러나 ▲장터목~천왕봉 ▲중산리~칼바위~법계사~천왕봉 ▲쌍계사~불일폭포 등 19개 구간은 입산이 허용된다.

영암 월출산의 경우 천황사~바람폭포~천황봉~도갑사(8.6㎞)구간과 경포대~바람재(옹달샘) ~ 천황봉(3.4㎞) 구간만을 개방하고, 나머지 샛길 등은 출입이 통제된다.

덕유산은 삼공매표소~백련사~향적봉과 곤돌라를 이용한 ▲설천봉~향적봉 ▲서창매표소~안국사 ▲황점~삿갓골재 코스를 제외한 전 구간이 통제된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계속되는 겨울가뭄으로 어느 해보다 산불 위험이 높다"며 "입산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주요 구간에는 산불감시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공익근무요원 등을 배치하는 등 무단 입산자로 인한 산불 발생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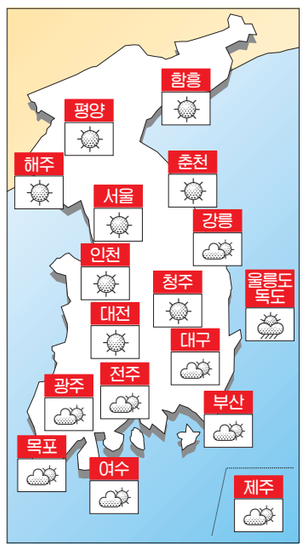
찬바람에 뒹구는 낙엽

고기압의 영향으로 흐린 뒤 맑아지겠다.

11월 20일 (음 9월 30일) ◇전국날씨

날씨

광 주	흐린 뒤 맑아짐	6~17℃
목 포	흐린 뒤 맑아짐	7~16℃
여 수	흐린 뒤 맑아짐	10~15℃
완 도	흐린 뒤 맑아짐	7~17℃
구 례	흐린 뒤 맑아짐	2~17℃
해 남	흐린 뒤 맑아짐	3~17℃
장 흥	흐린 뒤 맑아짐	4~17℃
고 흥	흐린 뒤 맑아짐	4~17℃
순 천	흐린 뒤 맑아짐	2~17℃
영 광	흐린 뒤 맑아짐	5~15℃
진 도	흐린 뒤 맑아짐	7~17℃
전 주	흐린 뒤 맑아짐	5~17℃
남 원	흐린 뒤 맑아짐	2~17℃
정 읍	흐린 뒤 맑아짐	4~16℃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1:11 13:57 썰물 06:35 19:14
여 수 밀물 08:41 20:35 썰물 02:01 14:45

▲해뜸 07:11 ▲해짐 17:24 ▲달뜸 06:26 ▲달짐 16:3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1(화)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날 씨						
최저/최고	5/16	5/15	6/13	6/14	4/16	6/15

광주일보 수습기자 공채 광주일보 제55기 수습기자 채용 시험 응시생들이 19일 오전 광주 대성학원에서 제2차 필기시험을 보고 있다. 이날 필기시험에는 제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24명이 응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교조 "연가 강행" 對 교육부 "불법 엄단"

교육계 '교원평가' 정면 충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22일 연가(年暇)투쟁을 앞두고 전교조와 교육당국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해 강도 높은 연가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며 교육당국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 강력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전교조 '교원평가 저지'** = 전교조 이철호 임시대변인은 1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년부터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연가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연가투쟁 집회에는 7천~8천여명의 교사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회원 3명이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열린 교원평가 법제화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구속되고 조모(54)씨 등 전교조 회원 2명이 불구속 입건되면서 격앙된 분위기다.

◇ **징계는 어떻게?** = 현재 교원휴가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 하기·동기 및 학기말 휴업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과거 연가투쟁 참여 횟수와 합산해 주의나 경고, 징계 등을 받게 된다. 무단결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조퇴투쟁을 포함해 연가투쟁 1회면 구두 주의, 2회면 일괄경고, 3회면 서면경고, 4회면 징계 등을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주의·경고·징계 등을 받은 교원은 근무평점이나 포상심사 등 각종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가 사용 사유를 '가사' 등 개인적인 일로 적고 집회에 참석하는 편법을 쓰다가 적발되면 무단 결근시 조치될 주의나 경고, 징계 등이 가능하다.

한편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최근까지 모두 7차례의 연가투쟁을 벌였다. 지난해에는 연가투쟁을 계획했다가 자진 철회하면서 이수일 위원장 등 집행부가 사퇴하기도 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범죄피해자 종합 지원체계 내년 출범

정부 유관기관과 지자체, 시민단체가 연계해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단일화된 체계가 내년에 출범한다.

법무부는 19일 범죄 피해자의 상담·의료지원 및 신변보호,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법률 구조 등 일련의 피해 회복 대책을 종합·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체제를 2007년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55개 검찰청 소재지에 건립된 민간 자원봉사 단체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들 중 50여개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설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센터는 범죄 피해자의 상담과 신변보호, 의료 서비스 지원에서부터 생계자금 지원, 취업알선, 가해자와의 화해·중재 등 피해회복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재 취약지 7,500곳 특별 점검

광주시, 겨울나기 준비

광주시는 19일 시민들의 편안한 겨울나기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소방 안전·저소득층 보호·도로 제설·상수도 및 연료 공급 대책 등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월동기 소방안전 대책'을 마련해 영화관·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업소(5천417곳)·대형화재 취약지(140곳)·쪽방 및 주거형 비닐하우스(57곳) 등 화재취약지 7천500여 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리 막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수용시설 등 92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가정 350세대에 난방비를, 차상위계층에는 생계를 지원하고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 등을 위한 사랑나눔 운동도 전개한다.

시는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해 염화칼슘 1천617톤·모래 3천143㎥를 확보해 취약구간에 이미 배치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눈치우기 운동'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상수도 동파를 막기 위해 12만6천 개의 급수전에 대해 계량기 보온 조치 등 월동대책을 마련하고, 5개반 16명으로 편성된 '생활민원기동처리반'도 운영한다.

시는 생활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주유소·판매업소 등 454곳에 대한 품질검사를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늘리고, 저소득층·고지대 거주자에 대한 불편을 줄여주도록 연탄업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세계서 가장 선명한 뇌 영상 촬영

가천 의대 뇌과학연구팀 미세신경·혈관 등 완벽 포착

국내 뇌과학 연구팀이 세계에서 가장 선명한 뇌 영상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 조장희 박사팀은 초고해상도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7.0T)와 자체 고안한 촬영장치를 이용해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뇌 속 뇌간 부위의 미세신경 다발과 뇌 시상부위의 미세혈관을 선명하게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뇌 영상 촬영에 사용된 MRI는 자장이 7만 가우스에 달하는 최고의 제품으로, 세계적으로도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 6개 첨단 연구기관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7만 가우스의 자장은 지구 자장(0.2 가우스)의 35만 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재 일반 병원에서 사용되는 MRI는 자장이 1만5천 가우스 정도다.

연구팀은 뇌졸중이 많이 생기는 뇌 시상핵 부위의 미세 혈관들도 완벽하게 촬영했다. 뇌동맥과 직각을 이루고 있는 이들 미세혈관은 지름이 0.3~0.6㎜에 불과해 그동안에는 흐릿한 영상으로만 볼 수 있었다.

/연합뉴스

첫 귀환포로 조창호씨 별세

21일 향군장…국립묘지 안치

1994년 한국전쟁 국군포로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귀환했던 조창호 예비역 중위가 19일 0시30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76세.

1950년 연세대 1학년에 재학중이던 조씨는 육군본부 직속 포병 101대대 관측담당 소위로 참전했다 이듬해인 1951년 강원도 인제 전투에서 중국군에게 포로가 돼 43년 동안 북한에 억류됐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조씨의 장례식을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첫 향군장(葬)으로 치른다. 발인은 21일 오전 8시이며, 유족으로는 부인 윤신자씨와 북에 두고 온 아들 선일·선이씨와 딸 선옥씨가 있다.

/연합뉴스